



광주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내년 1월 1일까지 샌안토니오 아트페이스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 광주-샌안토니오, 40년 우정의 발자국

광주시립미술관, 미국서 자매도시 40주년 기념전 개최  
 황영성·우제길·정선휘·이이남·임남진·이정기 등 10명

광주시는 지난 1982년 미국 샌안토니오시와 자매 도시 결연을 맺었다. 텍사스주 남부에 위치한 샌안토니오시는 인구 155만명의 도시로 공업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불린다. 또 스페인과 멕시코풍 건축물, 알라모 전투유적 등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리버워크 등 볼거리가 어우러져 관광도시로도 이름이 높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샌안토니오 자매도시 결연 40주년을 맞아 샌안토니오 아트페이스(Artpace San Antonio)에서 기념전을 열고 있다.

지난 40년간 광주와 샌안토니오의 자매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샌안토니오 루미나리아 축제에 2015년부터 광주 작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샌안토니오 작가의 작품을 설치했다. 특히 샌안토니오시는 이번 전시가 개막된 9월에 열린 세계 유산축제의 메인주제를 '광주'로 정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개막해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4개월간 계속되는 기념전의 타이틀은 'Our Step, Our Hope'. 지난 40년간의 교류와 우정의 발자국이 미래의 희망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이번 전시를 주최한 샌안토니오 아트페이스는 예술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예술 공동체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창조적 실험실을 목표로 199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지역과 국내외 예술가 지원을 위해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를 제공하며 국내 작가로는 박이소·서도호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광주의 학문적 사유와 예술적 전통, 의로운 역사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해 소개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이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회화부터 설치, 영상 등 뉴미디어아트까지 다양한 매체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원로작가부터 청년작가까지 모두 10명이 초대됐다. 참여작가는 황영성, 우제길, 정선휘, 이이남, 임남진, 이정기, 하루.K, 임용현, 조은솔, 설박 등이다.

'황소와 가족'을 주제로 작업해 황영성은 격자 구성 속에 현대인들의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담아 시대성과 인류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우제길은 빛의 색감

과 형상에 기반 한 추상회화를 통해 한국의 모순된 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낸다.

미디어아트 작품도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이남은 오지호·허백련의 작품을 재해석해 선보이며 정선휘는 노동하는 서민의 일상이나 고요한 산사의 풍경을 담아낸 회화와 LED 조명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풍경을 제시한다. 임용현은 코카콜라 캔 위에 다양한 문화적 코드들을 맵핑.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문화를 이야기한다.

임남진은 감로평화 형식을 차용한 현대적 풍속화를 통해 동시대인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며, 이정기는 후대에 남겨질 유물로서 현대인의 자화상을 조각 설치 작품으로 선보인다. 하루.K는 광주 근교의 정자와 산수 풍경을 맞춘 음식 풍경으로 변신시켰으며, 설박은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수목화와 천과 목재 구조물을 이용한 설치로 수목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한다. 조은솔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상황, 공간, 시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관계양상을 영상작업으로 보여준다.

이번 개막식에는 샌안토니오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명수 주류스틴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도수 샌안토니오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의 안우성 셰프를 비롯한 오명진, 정원상 셰프가 광주의 맛을 나누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인문학 '위로와 희망의 빛고을'

인문지행 17일~11월26일...문순태 소설가·양희석 교수 등

'문학으로 행복찾기', '영화 속 나의 삶', '오래된 미래의 길'... '위로와 희망의 빛고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의 인문자산을 기반으로 펼쳐지며 인문강좌,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인문지행은 오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모두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8차례의 토요일인문강좌, 5차례의 수요인문강좌, 두 차례의 인문 답사로 짜여져 있다.

먼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섹션1 토요일 인문 강좌는 푸른공동체마을센터 3층(광주시 동구 동명로 67번길 29)에서 펼쳐진다. 첫 강좌는 문순태 소설가가 '문학으로 행복찾기'를 주제로 문을 연다. 문 작가는 2회에 걸쳐 작가의 문학세계와 삶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답양 출신 문 작가는 '타오르는 강', '징소리'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민족의 동질성 관점에서 풀어냈으며 전후 소설의 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라도 말을 모티브로 시집을 펴내 올해 노작문학상을 수상한 조정 시인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맛깔스럽고 구성진 전라도 말을 녹여낸 시집 '그라시제라'는 전라도의 가치와 정신을 시로 형상화했다는 평을 얻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블라디미르 시인의 시 낭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는 '시를 읽는 마음 풍경'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최유준 교수는 음악 강좌를 2회에 걸쳐 펼친다. 최 교수는 '블루스와 아프리카계의 미국 음악 기원' 등을 주제로 색다른 강의를 풀어낼 예정이다.



문순태 소설가



조정 시인

자신을 '결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동양인문학자 양희석 명예교수는 인문학적 감각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며, 마지막 영화인문학 시간인 '영화 속 나의 삶'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섹션3은 인문답사 2회로 구성돼 있다. '오래된 미래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동양 인문정신의 본질과 그 주체성의 문제를 일상적 적용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할 예정이다. 답사는 각각 10월 16일과 11월 6일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인문지행 카페 참조. 문자신청은 010-5205-56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삶에 대한 성찰, 인간에 대한 본성

전진현 기획초대전, 14~27일 화순 태곳미술관

서예가 남초(南潮) 전진현 작가 기획초대전이 14일부터 27일까지 화순 태곳미술관(화순읍 내평길 39-11)에서 열린다.

세 번째 개인전이자 25년 만에 갖는 초대전인 이번 전시에서 전 작가는 행서를 중심으로 전서와 예서, 한글 판본체 등 다양한 서체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은 삶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고 인간의 본성을 지켜가기 위해 공부하고 마음에 담아둔 경구(警句)를 써내려갔고, 자신의 인생 지표로 삼고 있다.

남용(南龍) 김용구 선생 문하에 입문한 후 꾸준히 글쓰기를 해 온 남초는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서예대전, 광주시전, 전남도전 등의 초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고전 서예의 고법을 지키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

개인전 이외에도 제2회 한중 서법 교류전, 전라남도 개도100주년 기념전, 한글 반포 560주년 기념 초대전 제7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전, 2010년



사진설명

하서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하서 문화 축전 서예초대전 등 굵직한 전시회에 초대됐다. 문의 061-375-155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意境소리-散調'

## 인간의 심상에서 우리나라 소리

박흥수 기획초대전, 15~21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한국화가 박흥수 작가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화폭에 풀어 놓는다. 소리가 대표적이다.

소리는 대체로 청각에 기대어 그 의미를 발현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통해 그 형상을 풀어내고 상상할 때는 자기 안에서 우리나라 오는 자신만의 세계가 표출된다. 박 작가는 전시작들에 대해 '자연계 생명체들 속에 내재된 소리의 세계를 운필의 기호적 형상과 색채 이미지로 표현해본 작품'이라고 말했다.

주제로 인간의 심상에서 우리나라 소리를 붓질과 채묵으로 풀어냈다.

박 작가는 물, 바람, 꽃, 구름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소리를 상징하는 것들은 자연현상에서 인간들이 취하면 좋을 현실의 소리라고 말한다. 수목화의 자연스러운 번짐과 적절한 색채의 혼합은 화폭에서 잘 어우러지며 몽환적인 느낌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존재감을 갖는 큰 줄기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되는 생명본성의 체득과 발현이라는 동양 자연주의 회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흥수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부 한국화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며 조선대학교 미술관·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아무튼 북페어' 자신의 책 취향은?

광주·서울·제주·전주 독립서점 7곳 참여... 17일 전일빌딩245

'이번엔 책이다.' 전일빌딩 245에서는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Connected spot (연결된 지점) - 다시 꽃으로 피어'를 주제로 다양한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아트즈와 2022전일빌딩 245사업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8월 한달 휴장 후 열린 9월의 주제는 잭팟(Jackpot). 지난주에는 풍성한 지역교류 음악회에 열린 데 이어 이번 오는 17일에는 '아무튼, 북페어'를 비롯해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아무튼, 북페어'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제주, 전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서점 7곳이 함께하는 기획이

다. 각 지역의 특성 있는 서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이자 자신의 '책 취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이번 북페어에는 ▲서울의 꾸미, 송하슬라 ▲전주의 잘 익은 언어들, ▲제주의 무명서점, ▲광주의 러브앤프린, 책과 생활이 참여한다.

또 시민셀러 5팀도 참여해 책을 나눈다. 행사에서는 자신만의 책들을 소개하고, 독립출판물을 만들어 나가는 서점들의 다양한 책과 굿즈를 만날 수 있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전일빌딩245 1층과 야외로비에서 진행된다. 공식 인스타그램(@jeonil\_building\_245\_), 블로그 (blog.naver.com/jeonil\_245\_) 참조.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